

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, 인터넷에서 「파인」 두 글자를 쳐보세요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	보 도 자 료			
	보도	2022.4.20.(수) 조간	배포	2022.4.19.(화)
담당부서	불법금융대응단	고병완 팀장(3145-8521), 김정현 선임조사역(3145-8125)		

제 목 : '21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

※ 금감원은 사기에 의한 자금의 송금·이체를 보이스피싱 피해로 집계하며, 「통신사기 피해환급법」의 적용대상이 아닌 대면편취형 및 재화·용역을 가장한 사기는 미포함

1 개황

- **(피해금액)** '21년 보이스피싱(계좌이체형) 피해금액은 총 1,682억원으로 전년(2,353억원) 대비 671억원(△28.5%) 감소
 - '19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사기활동 위축 등으로 피해금액은 대폭 감소한 가운데 '21년 감소율(△28.5%)은 전년(△65.0%) 대비 둔화
 - 다만, 최근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하고, 코로나19 등 사회적 관심사를 이용한 신종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피해예방 노력 필요
- **(환급률 및 피해자수)** 피해금액 중 603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되어 환급률(환급액/피해금액)은 35.9%이며, 피해자수는 총 13,204명으로 전년(18,265명) 대비 27.7%(△5,061명) 감소

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

(단위 : 억원, 건, %, %p)

구 분	'17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전년대비 증감률
피해금액 ¹⁾	2,431	4,440	6,720	2,353	1,682	△28.5
환급액	598	1,011	1,915	1,141	603	△47.2
환급률	24.6	22.8	28.5	48.5	35.9	△12.6
피해자수	30,919	48,765	50,372	18,265	13,204	△27.7

주1) 피해구제신청접수(1차 계좌) 기준임

2 '21년 보이스피싱 피해의 주요 특징

1 메신저피싱 피해 급증

-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91억원으로 전년대비 165.7%(+618억원) 급증하면서 피해비중이 58.9%에 달함
- 코로나19 이후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기수법이 대출빙자형에서 메신저피싱으로 전환한 것에 기인

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 현황

(사기유형별 피해금액 비중)

(단위 : 억원, %, %p)



구 분		'19년	'20년	'21년	전년대비 증감(률)	
사 칭 형	메신저피싱 (비중)	342 (5.1)	373 (15.9)	991 (58.9)	+618 (+43.0)	(+165.7) -
	기관사칭 (비중)	1,872 (27.9)	414 (17.6)	170 (10.1)	△244 (△7.5)	(△58.9) -
대출빙자형 (비중)		4,506 (67.0)	1,566 (66.6)	521 (31.0)	△1,045 (△35.6)	(△66.7) -
합계		6,720	2,353	1,682	△671	(△28.5)

* 비중은 전체 피해액 중 비중

2 사회적 관심사를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 성행

- 코로나19 관련 백신접종, 재난지원금 또는 대선 여론조사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이 발생

사회적 이슈를 이용한 사기수법 사례 [예시]

- (백신접종)** 백신접종 예약 인증, 방역증명서 발급 등을 빙자하며 개인정보 입력 또는 악성 URL주소를 보내 원격조종앱 설치를 유도
- (재난지원금, 소상공인 정책자금)** 한시적 특별대출이라며 소비자를 유인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기존대출 상환을 빙자하며 자금 편취
- (선거 여론조사 사칭)** 여론조사기관을 사칭하며 대통령(지방)선거용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개인정보 입력 등을 유도

③ 비은행 금융회사를 통한 피해 증가

- 은행 피해액은 1,080억원으로 전년대비 38.1%(△665억원) 감소하였으나, 증권사의 피해액은 220억원으로 전년(90억원) 대비 144.4%(+130억원) 급증
- 이는 증권사 등 비은행권역의 비대면 계좌개설, 오픈뱅킹을 통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데 기인

금융권역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현황

(금융권역별 피해금액 비중)

(단위 : 억원, %)



구 분	'19년	'20년	'21년	전년대비 증감률
은행	4,839(72.0)	1,745(74.2)	1,080(64.2)	△38.1
비은행	1,881(28.0)	608(25.8)	602(35.8)	△1.0
증권사	121(1.8)	90(3.8)	220(13.1)	+144.4
非증권사	1,760(26.2)	518(22.0)	382(22.7)	△26.3
합 계	6,720(100.0)	2,353(100.0)	1,682(100.0)	△28.5

④ 고령자 등 금융취약층 피해 증가

- '21년 연령별 피해금액은 40·50대가 873억원(52.6%), 60대 이상이 614억원(37.0%), 20·30대는 173억원(10.4%) 順
- '19년 이후 60대 이상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지속 증가 추세

연령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현황¹⁾

(단위 : 억원, %, %p)

구 분	'19년		'20년(A)		'21년(B)		증감(B-A)	
	금액	(비중)	금액	(비중)	금액	(비중)	금액	(비중)
20대 미만	1.8	(0.03)	0.4	(0.02)	0.4	(0.02)	0.0	(0.0)
20·30대	915	(13.8)	310	(13.3)	173	(10.4)	△137	(△2.9)
40·50대	3,949	(59.6)	1,332	(57.2)	873	(52.6)	△459	(△4.7)
60대 이상	1,756	(26.5)	686	(29.5)	614	(37.0)	△72	(+7.5)
합계	6,621	(100.0)	2,328	(100.0)	1,660	(100.0)	△668	-

주1) 피해구제신청접수(1차 계좌) 기준(법인 피해자는 제외)

3 향후 대응방안

① 메신저피싱 등 주요 사기수법에 대한 대응 강화

- 피해자의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여 다양한 방법*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메신저피싱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,

* 수시입출금 계좌 잔액을 직접 이체할 뿐 아니라 저축성 예금, 보험 등을 해지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아서 편취하는 경우도 있음

- 메신저피싱 증가 우려가 있거나 신종 수법이 출현할 경우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피해확산 예방노력 지속

- 최근 메신저피싱은 원격조종앱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으므로, 원격조종 프로그램 작동시 금융앱에서 앱 구동을 차단하는 기술을 도입토록 유도

② 의심거래탐지시스템(FDS*) 고도화 및 AI 등 첨단기술 활용

* Fraud Detection System

- FDS 고도화 작업에 AI 등 신기술*을 접목하여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금융회사 대응력이 제고되도록 유도

* 머신러닝시스템은 AI기술을 통해 피해계좌 및 사기이용계좌의 행동·거래패턴을 분석하여 의심거래 정황을 포착

- AI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한 이상행동 탐지 ATM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금융사기 예방에 다른 금융회사도 참여하도록 적극 독려

③ 비은행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

- 비대면계좌 개설시 본인인증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모범사례를 전파

- 또한, 오픈뱅킹을 통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회사가 관련 방안을 수립·시행하도록 자체점검 지도

4 취약 연령대별 맞춤형 홍보·교육 실시

- 금융소비자 연령별 특성*에 부합하는 맞춤형(bespoke) 홍보·교육을 SNS·온라인채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실시

* 30·40대는 대출빙자형 피싱, 50·60대는 가족 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에 취약

- 60대 이상 고령층 대상으로 최근 급증하는 대면편취, 메신저피싱 등 신종 수법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홍보·교육 채널* 발굴

* 노인을 대상으로 한 대한노인회의 연수 프로그램 활용 등

4 금융소비자 유의사항

☐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세요

-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·문자를 통한 대출 안내, 개인정보 제공, 자금 요구, बैं킹앱*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음

* 범죄자들은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가짜 모바일 बैं킹앱 설치를 유도

※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등 대출관련 정보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는 있으나, 금융회사 명의의 전화문자 대출광고는 보이스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높음을 유의

-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,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이체 또는 현금전달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

→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,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함

☐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터치하지 마세요

-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터치할 경우 원격 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(신용)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피해 발생*

* 수상한 사람이 보낸 URL을 통한 가짜 금융회사 앱 설치 요구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됨

□ **피해금을 송금한 경우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**

-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해가지 못하도록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, 경찰청(☎112) 또는 금감원(☎1332)에 전화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

□ **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신속히 다음 조치를 하세요**

① **개인정보(신분증, 계좌번호 등) 노출사실 등록**

- ✓ 금감원 **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**(pd.fss.or.kr) 접속
- ✓ 이용약관,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
- ✓ **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,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**

② **명의로용된 계좌 개설 여부 조회**

- ✓ 금융결제원 **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**(www.payinfo.or.kr) 접속
- ✓ 주민번호 입력,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
- ✓ '내계좌한눈에' 메뉴 클릭하여 **본인명의로 개설된 예금·대출 계좌 상세내역**(은행, 계좌번호, 개설일, 잔고 등) 확인
- ✓ **명의로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**

③ **명의로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**

- ✓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**명의로용방지서비스**(www.msafar.or.kr) 접속
- ✓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 인증으로 로그인
- ✓ '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' 메뉴 클릭하여 **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여부**를 확인
- ✓ 명의로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**회선 해지 신청 및 명의로용 신고**
- ✓ '가입제한 서비스' 메뉴 클릭하여 **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**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1

메신저 피싱(지인사칭)

- 문자메시지, 카톡 등으로 가족·지인을 사칭하며 긴급한 사정*을 이유로 개인정보** 및 금전이체 등을 요구

* 본인의 휴대폰 고장, 신용카드 도난·분실, 사고 합의금 명목의 급전 필요 등

** 신분증,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, 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,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

- 메신저피싱 피해는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하는데, 이는 사기범이 자녀를 사칭함으로써 부모의 이성적 판단이 와해되는 취약점을 공략
- 사기범이 탈취한 신분증, 인증번호 등으로 피해자 몰래 계좌잔액 인출, 신규계좌 개설 및 신규대출신청, 오픈뱅킹 가입 후 피해자의 다른 금융 계좌 잔액을 편취하는 등 추가 피해 위험에 노출

① '21.12월 사기범은 피해자 A씨(62세, 주부)의 딸을 사칭하며, '엄마 나 휴대폰이 파손되어서 급하게 휴대폰보험 신청해야 해. 엄마 명의로 대신 진행하게 도와줘'라며 메신저톡을 전송함

② 이에 속은 피해자는 사기범으로부터 받은 메신저톡의 악성링크를 클릭하여 원격조종앱이 휴대폰에 설치되었고, 또한 사기범에게 본인의 신분증 촬영본, 은행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함

③ 사기범은 원격제어를 통해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된 금융앱에 접속하여 해당 계좌 잔액 및 오픈뱅킹서비스를 통한 타행계좌 잔액을 모두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하여 총 26,700만원의 자금을 편취

2

기관 사칭형

- 검찰·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후, 피해자의 재산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여 피해 발생

- ① '22.1월 B씨(34세, 직장인)는 서울OO지검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“국제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내일 검찰로 출두하라”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자 “내 말을 못 믿겠으면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알려 줄테니 영장을 확인하라”며 피해자를 기망
- ② 사기범이 불러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에게 발부된 (가짜)영장을 확인한 E씨는 사기범의 말을 신뢰하고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사기범이 자금이체를 요구하며 알려준 금감원 팀장을 빙자한 사기이용계좌로 2억원을 이체
- ③ 자금출처를 확인한 후 곧 환급될 것이라는 말과 달리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B씨는 금감원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리고 지급정지 하였으나 이미 사기범은 전액 현금으로 인출 후 잠적

3

대출빙자형

- 금융회사를 빙자한 사기범은 정부 지원의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며 대출심사 명목의 개인정보 및 선납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송금하자 이를 편취하고 잠적

- ① '22년 OO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은 피해자 C씨(46세, 자영업)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영세소상공인 정책대출 신청을 접수한다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, 피해자에게 해당 신청접수 사이트를 빙자한 악성링크 접속 및 개인정보 입력, 대출심사 관련 선납금 송금 등을 요구
- ② 피해자는 사기범이 알려준 악성링크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였고 선납금 명목의 1,500만원을 사기이용계좌에 송금하여, 사기범이 이를 편취한 후 잠적

□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
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여 피해 발생

- ① '21.11월 D씨(56세, 자영업)는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에서 저금리대출을 검색하던 중 대출관련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저금리대출 안내글을 보고 해당글에 기재되어 있는 메신저 연락처로 연락을 함
- ② 사기범은 △△금융 팀장이라며 저리대출을 받으려면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함을 빙자하며, 피해자명의 기대출금액의 7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 명목으로 사기이용계좌로의 이체를 요구
- ③ 이에 속은 피해자가 총 27,000만원을 송금하자 이를 편취한 후 잠적

□ 대출빙자형 사기의 경우, 사기범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전달을
직접 요구하는 대면편취형 사기수법도 병행

- ① '22.1월 E씨는 ☆☆은행 대출업무 팀장이라고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저리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전화로 받았고, 이를 위해서는 기존대출 상환 및 금융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음
- ② 이에 피해자는 기존대출 상환 목적의 자금과, 금융거래 실적 향상을 위한 이체·송금 목적의 자금을 9회에 걸쳐 총 39,600만원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
- ③ 이와 별개로, 사기범은 본인이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현금을 직접 안전하게 전달 받아야 한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, 피해자는 3회에 걸쳐 총 13,000만원을 사기범에게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전달함

<금융소비자 정보포털(파인) : ①개인정보노출등록 및 ②계좌정보통합조회>

금융소비자 정보포털(파인)

공통

- 장자는 내돈 찾기
- 금융상품 한눈에
- 상속인 금융거래조회
- 금융상품약관조회
- 내계좌확인
- 금융사기민도소위
- 신용정보조회
- 신용상담

금융꿀팁

- 금융꿀팁 200선
- 영상뉴스 파인특독
- 금융자문서비스
- 금융거래계산기
- 금융용어사전

은행·카드

- 자동이체 통합관리
- 카드 포인트조회
- 외환갈집이

보험·증권

- 내보험다모아
- 보험다모아
- ISA다모아
- 자동차보험포털
- e클린보험서비스
- 내보험찾아줌
- 펀드다모아
- 전자공시(MFR)
- 장애통보

통합연금포털

- 연금저축비교공시
- 퇴직연금비교공시
- 원리금보장 연금상품
- 퇴직연금맞춤형수수료비교

소비자보호

- 금융소비자보호
- 보이스피싱자감어
- 전국민신용교육
- 금융소비자의 소리
- 불법금융 SOS
- 개인정보노출등록·해제
- 금융사기민도소위
- 금융교육센터
- 즉시연금 분쟁조정신청안내
- 금융상품비교공시(금융협회)

서민·중소기업

- 서민금융1332
- 중소기업·자영업자금융지원
- 전·월세자금안내
- 서민금융진흥원맞춤대출
- 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
- 중소기업직접금융 종합지원

금융회사

- 제도권 금융회사조회
- 금융회사 핵심경영지표
-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
- 금융동계정보시스템
- 소액해외송금업 조회
- 유사투자자문업자신고현황

<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Msafer 사이트 : 명의도용방지서비스>

Msafer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정보와 소통 고객센터 인증센터 통신원원조정센터

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

이동전화, 무선인터넷, 인터넷전화의 가입현황을 실시간으로 열람

가입제한 서비스

통신사 지정 방문없이 온라인상으로 이동전화 신규가입 사전 차단

이메일안내 서비스

내 명의로 등록된 유무선 통신사, 인터넷, 종합유료방송의 개통사실을 이메일로